

# 우즈벡어의 언어위상 변화와 우즈베키스탄 내 소수 민족어 문제\*

유 승 만\*\*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상황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소비에트 시기의 대 우즈베키스탄 언어정책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둘째,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상황을 언어위상(language status)과 언어코퍼스(language corpus)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sup>1)</sup> 기존의 우즈베키스탄의 언어 상황에 대한 연구들은 언어개혁이라는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온 측면이 많다.<sup>2)</sup> 소련의 해체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의 언어 개혁은 자국어의 언어위상을 회복하려는 강한 정치적 동기로 인해 언어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

\* 이 논문은 200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7-362-B00013).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 1) 언어위상에 대한 연구는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과 그들이 언어를 매개로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연구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언어코퍼스에 대한 연구는 알파벳, 철자법, 어휘 등 언어의 내적 구성요소를 비롯하여, 언어 교육, 언어의 표준화 등을 포함한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지칭한다. 언어위상과 언어코퍼스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은 Kloss(1969)를 참고하시오.
- 2)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의 언어정책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김효정(2000), 허승철(2002), 정경택(2006)이 있다. 국외 연구로는 Akiner(1989), Crisp(1991), Fierman(1985, 1995), Guboglo(1984), Isaev(1979), Kreindler(1995), Kirkwood(1989, 1991), Leitin(1998), Schlyter(1998, 2001), 등 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언어 내적인 문제나 언어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언어법을 포함한 정책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립 후 1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1990년대 초의 언어개혁이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상황에 어떠한 질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언어의 체계모니가 러시아어에서 우즈베크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민족어로 전락하고 있는 러시아어와 기타 소수민족어(타지어, 카라칼팍어, 한국어 등)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인구학적 특징과 우즈베크어의 계통을 먼저 개관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상황을 소비에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상황에 대한 고찰은 언어정책과 더불어 언어상황의 실질적 변화상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질 것이며, 말미에 소수 민족어의 현실에 대한 조망으로 논의를 가름할 것이다.

## 2. 우즈베키스탄의 인구학적 특징 및 언어 계통

### 2.1. 우즈베키스탄의 인구학적 특징

우즈베키스탄의 2008년 1월 현재 인구는 총 2,707만 여명으로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sup>3)</sup> 중앙아시아 5개 국에 흩어져 있는 우즈베크인 또한 280여 만 명으로 각국의 비명목(non-titular) 민족 중에서 큰 비중

3)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인구수에 대해서는 연구서마다 다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Campbell (1995)은 1,200~1,300만 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CIA World Factbook 2007년 판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수가 약 2천 8백 만 명으로 나와 있으며, 이 중 우즈베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수는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간된 통계자료(Узбе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08)에 의하면 2008년 1월의 총 인구수는 27,167,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IA World factbook 2008년 판 중앙아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관련 정보와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의 정보를 근거로 하였다, 이에 근거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토면적과 인구수는 아래와 같다.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투르크멘	타지
국토면적	447,400m <sup>2</sup>	2,717,300m <sup>2</sup>	199,500 m <sup>2</sup>	488,100 m <sup>2</sup>	143,100 m <sup>2</sup>
인구수	27,167,300	15,340,300	5,356,000	5,179,000	7,211,000

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6천여 만 명의 인구 중에서 우즈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60여 만 명으로 우즈벱인이 중앙아시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넘고 있다.<sup>4)</sup>

<표 1> 중앙아시아 5개국의 총인구 및 이 지역 거주 우즈벱인의 수 (단위: 1,000명)<sup>5)</sup>

	우즈벱	카자흐	키르기스	투르크멘	타지
총인구	27,067	15,340	5,356	5,179	7,211
우즈벱 민족	21,876	352	771	476	1,197
우즈벱인 비율	80.5%	2.3%	14.4%	9.2%	16.6%

이와 더불어 우즈벱키스탄은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56%, 2007년에는 1.75%로 연 50여 만 명이 증가한다고 볼 때, 우즈벱키스탄의 인구는 향후 2015년까지 3천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sup>6)</sup>

이러한 상황에서 우즈벱키스탄 내의 소수 민족과 우즈벱인들 간의 긴장도 첨예화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즈벱키스탄에는 현재 130여 민족이 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우즈벱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80% 이상). 그 외에 러시아인(6% 내외), 타지인(4.8%), 카작인(4.1%), 카라칼팍인(2% 내외), 타타르인(1.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은 우즈벱키스탄에서의 민족주의를 강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비우즈벱인의 역외 이주 사태를 가져와 90년대에만 100만 여명 이상의 비우즈벱인이 우즈벱키스탄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0년 대 중반 75% 내외였던 우즈벱인의 비율은 2000년대 들어 80%를 넘게 되었다.

우즈벱키스탄의 이러한 인구학적 특징은 우즈벱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하고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간

4) 우즈벱키스탄의 인구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데는 소비에트 시기 초기의 산업화를 위한 강제 이주와 1966년 타슈켄트 대지진의 복구를 위한 이주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5) 본 수치는 CIS Worldfact Book과 Landay et al.(2004)의 정보를 종합하여 얻은 것이다.

6) 자세한 수치는 *Ўзбекистан в цифрах* (2008: 37)을 참고하시오.

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자국 내 소수 민족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중앙아시아 5개국의 민족 분포

	민족분포
카자흐스탄	카작인 53.4%, 러시아인 30%, 우크라이나인 3.7%, 우즈베크인 2.5%, 독일인 2.4%, 타타르 1.7%, 위구르 1.4%, 기타 4.9% (1999년 인구센서스 결과)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인 64.9%, 우즈베크인 13.8%, 러시아인 12.5%, 둔간 1.1%, 우크라이나인 1%, 위구르인 1%, 기타 5.7% (1999년 인구센서스 결과)
우즈베크스탄	우즈베크인 80%, 러시아인 5.5%, 타작인 5%, 카작인 3%, 카라칼팍인 2.5%, 타타르인 1.5%, 기타 2.5% (1996년 통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인 85%, 우즈베크인 5%, 러시아인 4%, 기타 6% (2003년 통계)
타지키스탄	타작인 79.9%, 우즈베크인 15.3%, 러시아인 1.1%, 키르기스인 1.1%, 기타 2.6%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

출처: World Factbook 2008, CIA.<sup>7)</sup>

즉, 우즈베크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자국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민족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 있다. 1990년대 우즈베크스탄 정부의 언어정책은 이러한 인구학적 특징에 기반한 강력한 우즈베크어화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우즈베크 민족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러시아인이 선택한 방법은 집단적 반발보다는 역외이주나 우즈베크어화 정책에의 적응이었다.

## 2.2. 우즈베크어의 계통<sup>8)</sup>

우즈베크어는 계통상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 어족, 그 중에서도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 타타르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야쿠트어 등과 함께 터키어족에

7) 표 2의 데이터는 2001년 CIA World Factbook을 인용한 허승철(2002: 332-333)의 자료에 2008년 CIA World Factbook의 자료를 추가하여 얻은 것이다.

8) 우즈베크어(O'zbek tili)는 영어로 Uzbek 또는 Uzbeg, 러시아어로 Узбек, 독일어로 [zbek, 프랑스어로 Ouzbek 또는 Ouzbeg으로 표기한다.

속한다.<sup>9)</sup>

<표2> 알타이어족

터키어족 <sup>10)</sup>	통구스어족	몽골어족		
터키어 아제르어 우즈벱어 카라칼팍어 카작어 키르기스어 투루크멘어 타타르어 위구르어 야쿠트어	에벱키어 차카르어	할하어 부랴트어	한국어	일본어

역사적으로 우즈벱어는 터키어계통의 차가타이어(고대 우즈벱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세기 티무르제국에서 16세기 무굴제국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공용어로서 위세를 떨치던 우즈벱어는 무굴제국의 몰락과 함께 그 위세가 다하여 이후 범중앙아시아어에서 지역어인 우즈벱어로 위세가 축소된다.<sup>11)</sup> 5세기 이후 수세기에 걸친 투르케스탄 지역에 대한 페르시아인, 몽골인, 터키인의 침입은 우즈벱키스탄에 복잡한 문명혼합 과정을 가져왔

9) 알타이어족은 터키에서 시베리아, 중국, 동아시아에 걸쳐 퍼져 있는 어족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도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한국어와 일본어는 계통적으로 별도의 어족에 속한다는 논의들도 있다. 알타이 어족은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취하며, 전치사보다는 후치사를 취한다. 또한 모음조화 현상을 보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즈벱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교착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0) 터키어족에는 표에 제시된 언어 이외에 타타르어, 카슈카이어, 가가우즈어 등 여러 언어가 있으나, 본 표에는 주요 언어만을 기술하였다. 터키어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ohansson & Csat(1998)를 참고하시오.

11) 우즈벱 민족은 기원전부터 현재의 우즈벱키스탄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투르케스탄 지역에 대한 이란인, 몽골인, 터키인, 중국인의 침입으로 문명혼합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투르케스탄은 ‘터키인의 땅’이라는 의미의 이란어로 현재의 중국 신강위구르 자치구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우즈벱키스탄이라는 이름은 14세기에 투르케스탄을 지배했던 징기스칸의 후예인 Zbek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된다.

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우즈벱어에는 다양한 정복 민족어의 영향이 남아 있다.

현재 우즈벱어의 방언은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다.<sup>12)</sup>

- 1) 킵착(Kipchak) 방언 - 카자흐 및 카라칼팍어와 유사.
- 2) 북 우즈벱 방언 - 남 카자흐스탄 지역 포함.
- 3) 투르크멘 방언 - 투르크멘어의 영향을 받은 방언
- 4) 남 우즈벱 방언

이 중 우즈벱 표준어의 근간이 되는 방언은 남 우즈벱 방언으로 타슈켄트, 부하라, 안디잔, 사마르칸트 등의 방언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 남 우즈벱 방언은 다시 페르시아어와 타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방언과 그렇지 않은 방언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타슈켄트, 부하라, 사마르칸트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안디잔, 코간트, 나망간 등이 포함된다. 1930년대부터 타슈켄트의 방언이 우즈벱 표준어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나, 이외의 남 우즈벱 방언도 표준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sup>13)</sup>

### 3. 소비에트 시기 우즈벱키스탄의 언어상황과 소수 민족 문제

소비에트 시기 우즈벱키스탄의 언어상황 변화를 초래한 직접적인 동인은 소비에트의 민족정책과 러시아어 동화정책이었다.

첫째로 소비에트 정권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정책을 펴므로써 이 지역에 복잡한 민족 지도를 남기게 되었다. (Hirsch 2005:160-161). 즉, 소비에트 정권은 1924년 10월 기존의 투르케스탄(Turkestan), 부하라(Bukhara), 호레즘(Khorezm)을 없애고 우즈벱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민족 국가를 인위적으로 재구성하였다.<sup>14)</sup> 기존

12) 우즈벱 방언의 분류는 Sjoberg(1963)의 분류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Akiner(1989)는 표준 우즈벱어 이외에 12개의 방언이 존재하며, 이 방언들은 음운체계, 형태 및 어휘에 있어 표준 언어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urm(1960)을 참고하시오.

14) 인위적인 국경 구획으로 인해 투르크멘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벱 사회주의 공화국, 타직 사회주의 공화국(우즈벱 국경 내)이 1924년 생겨났다.

의 민족적 언어적 구획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할은 타지 문화의 중심이었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그리고 비우즈벱 민족이 다수 거주하던 페르가나 지역을 우즈벱키스탄 영토에 편입함으로써 타지인, 키르기스인 등과 같은 비우즈벱 민족을 우즈벱키스탄이라는 명목 국가에 인위적으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중앙아시아 민족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불씨는 1990년대 구 소련의 해체와 함께 첨예한 민족 간 분쟁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9년 6월 페르가나 계곡에서의 폭력사태와 타지키스탄에서의 내전 등은 우즈벱키스탄과 관련된 민족 분쟁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우즈벱키스탄 내에 다중언어 상황은 소비에트의 러시아어 동화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아야 한다. 소련의 언어정책이 모든 민족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레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소비에트 정권의 주장과는 달리 스탈린 이후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은 점진적으로 러시아어의 위상을 높여 러시아어를 범 사회주의 언어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진행되었다.

역사적으로 우즈벱어가 우즈벱키스탄의 공식어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1924년 우즈벱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된 이후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우즈벱어는 우즈벱키스탄의 공식어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1926년 중앙아시아에서 범이슬람주의의 발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라틴문자는 1940년 러시아문화 우월주의의 등장으로 키릴문자로 바뀌어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1991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스탈린은 1938년 비러시아계 학교에서의 러시아어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1959년 흐루시초프는 학부모가 러시아어와 민족어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러시아어 교육이 보편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1975년에는 러시아어 교육이 중등학교까지, 그리고 1979년까지 러시아어 교육이 점차적으로 유치원까지 확대됨으로써 러시아어 동화정책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1984년에는 러시아어가 모든 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러시아어는 단순한 교육 매개어가 아닌 "민족 간 소통의 언어, 사회주의의 언어, 레닌의 언어, 러시아인의 언어"가 되었다(Kirkwood 1991:67). 강력한 러시아어 동화정책은 우즈벱키스탄에서의 민족어 수호운동이라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우즈벱어 사용에 관한 인구센서스 상의 변화에 잘 드러나 있다.

〈표 3〉 모국어와 제 2 언어 사용비율의 변화

	모국어를 잘 안다고 표명한 인구			제 2언어를 잘 안다고 표명한 인구					
				러시아어			기타언어		
연도	1970	1979	1989	1970	1979	1989	1970	1979	1989
비율	98.6	98.5	98.3	14.5	49.3	22.3	3.3	2.8	3.8

1970년대에 러시아어 교육이 중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됨으로써 러시아어를 잘 안다고 대답한 우즈베크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89년에는 강력한 러시아어 동화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러시아어를 잘 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러시아어 동화정책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에트 말기에 우즈베키스탄 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러시아어에 능통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표 4〉 1989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상황<sup>15)</sup>

UM	UB	AB	AM
74.96	23.36	0.17	0.86

우즈베크인의 98.3%는 우즈베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중 24% 정도는 이미 러시아어 또한 모국어 못지않게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에트 해체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는 상층언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고, 따라서 소비에트로부터의 독립 이후 민족주의의 기치를 내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정책은 상층언어로서의 러

15) 본 도표는 소비에트 시기의 인구센서스 결과가 보여주는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Silver(1974)가 사용한 분류법을 활용한 것이다(허승철 1994, 1998에서 요약 재인용); (1) 비동화그룹(UM: Unassimilated Monolingual); 민족어만 사용, (2) 비동화 이중언어그룹(UB: Unassimilated Bilingual); 민족어를 제1언어로, 러시아어를 제 2언어로 사용, (3) 동화 이중언어그룹(AB: Assimilated Bilingual); 러시아어를 제 1언어로, 민족어를 제 2언어로 사용, (4) 동화그룹(AM: Assimilated Monolingual); 러시아어만 사용.



시아어의 위상을 우즈벱어로 환원시키는 우즈벱어의 위상 강화 정책이었다.

#### 4.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우즈벱키스탄의 언어 상황 변화

소비에트 해체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구소련 연방 국가들의 대부분이 자국어의 위상 재고를 위해 민족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한 정책이 언어입법과 문자개혁이다. 본 장에서는 언어입법과 문자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우즈벱어의 언어위상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언어코퍼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4.1. 언어입법

우즈벱키스탄에서는 두 번의 언어입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언어법은 1989년 10월의 국가 언어법(On the State Language)'이며, 두 번째 언어법은 1995년 12월의 수정 국가언어법이다. 두 번의 언어입법은 소비에트 언어정책으로 인해 상층 언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어의 지위를 우즈벱어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즈벱 민족과 러시아인을 포함한 비명목 민족 간의 민족 관계를 재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비에트 정권은 이론적으로는 그 어떤 언어에도 공식언어 또는 국가언어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소비에트 언어정책은 현실적으로 러시아어를 단순히 민족 간 소통의 언어'(language of inter-ethnic communication)가 아닌 상층어(super-stratum)로 자리 잡게 하였다. 즉, 러시아어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 상층부로 진출할 수 있는 매개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우즈벱어는 민족어로서의 명백만을 유지하며 가정 내에서의 소통의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1930년 이후 소비에트 정권의 이중언어 정책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어 습득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비러시아 민족들은 러시아어를 배운 반면, 러시아인은 민족어를 거의 배우지 않았다. 우즈벱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을 들어 러시아인들의 식민주의자로서의 자세를 비판하였다.<sup>16)</sup> 따라서 1989년의 언어법은 러시아어 동화 상황에 대한 반작용

입과 동시에 소비에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언어법 초안이 나온 것은 1989년 6월이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의 언어관련법(Law on the Soviet Socialist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anguages)이라는 명칭의 총 11장 39조로 구성된 법안에는 우즈벡어를 유일한 공식 국가언어로 규정하고 러시아어는 민족 간 공용어로 규정하였다. 카라칼팍어는 카라칼팍 자치공화국 내에서 공식 언어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1995년 12월 개정 언어법은 우즈벡어를 행정, 사법, 입법, 교육, 대중매체 등에서 우즈벡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타 언어의 사용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의 개정 언어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1989년의 언어법과 변별된다.

<표 5> 1989년 언어법과 1995 언어법 비교

	1989 언어법	1995 언어법
러시아어의 지위	민족간 소통어로서의 러시아어의 지위 인정	비우즈벡 언어들과 동등한 지위로 격하
언어규제		완화(28조 공무원의 우즈벡어 습득 필수조항 삭제, 6조 우즈벡어 필수교육 조항 삭제, 아랍문자 교육에 대한 조항 삭제 등)
실행속도	1997년까지 실행	2005년으로 연기

두 차례에 걸친 언어입법은 언어의 지위와 사용범위를 정의하는 정책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언어내용(language corpus)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 공교육에서의 우즈벡어의 확산으로 인해 세대 간 언어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교육매

16) 1989년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수십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왔던 러시아인들 중 우즈벡어를 제 2언어로 유창하게 한다고 응답한 인구는 전체 우즈벡 러시아인들의 4.9%에 불과하였다(Smith et al. 1998: 199). 우즈베키스탄 내 러시아인의 식민주의적 자세에 대한 우즈벡인의 비판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Fierman(1995:209)을 참고하시오.

개어를 상당부분 우즈벱어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언어내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표 6> 우즈벱키스탄 슈콜라 학생들의 교육언어별 비율

우즈벱어	79.0
러시아어	12.2
카자흐어	2.9
타직어	2.8
카리칼팍어	2.6
투르크멘어	0.3
키르기스어	0.2

출처: Ландау et al.(2004:267).

또한 우즈벱키스탄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매개 언어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표 7> 우즈벱키스탄 대학생들의 교육 매개 언어 변화

	우즈벱어로 교육				러시아어로 교육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0	1991	1992
비율	65.1	65.4	69.2	71.6	32.3	30.6	26.8	23.4

출처: Ландау et al.(2004:262).

이와 같이 공교육에서의 교육매개어로서의 우즈벱어의 위상강화 추세는 후속세대의 언어가 조만간에 러시아어에서 우즈벱어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표준어를 확립하기 위한 우즈벱키스탄 학계에서의 사전 편찬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편찬된 우즈벱어 사전(Тўхлиев Н. et al. eds. 2006-2008)이 2008년에 완간되어 우즈벱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우즈벱어로 쓰여진 우즈벱어 교재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sup>17)</sup>

17) 우즈벱어 문법서와 교재 발간은 우즈벱키스탄 교육부와 각 대학의 우즈벱어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법서와 교재로는 Usmonov et al.(2004)와 Muhiiddinova et al.(2006) 등이 있다. 영어로 쓰여진 우즈벱어 참고 문법서(reference

특징적인 점은 학생들을 위한 교재는 라틴 문자로 쓰여지고 있는 반면, 우즈벡어를 모르는 성인을 위한 교재는 키릴 문자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에 300여 종의 우즈벡어 교재가 발간되었으며, 1996/97학년도에는 저학년을 위한 언어교육법 교재가 교육부에 의해 50,000부 발행되었다(Ландау et al 2004: 306-307).

넷째, 매스미디어에서 우즈벡어의 사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내에 있던 러시아계 방송국은 거의 모두 철수하여, 현재 러시아계 방송은 케이블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다. 공중파 방송 시장은 국영 UzTV사가 독점하고 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프로그램의 자체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많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수입하여 방영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수입 프로그램을 우즈벡어로 더빙하여 방송하고 있다.

1995년 Fierman(1995: 227)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언어법이 실질적인(substantive) 조치이기 보다는 상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으나, 2000년대 들어서의 변화는 우즈벡어화가 단순한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 언어내용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sup>18)</sup>

## 4.2. 문자개혁

우즈벡어의 표기체계는 20세기 들어와 소비에트 정권의 언어정책으로 인해 몇 번의 변화를 겪었다. 9세기 아랍의 침입 이후 1926년까지 우즈벡어는 아랍 문자로 쓰여졌다(Fierman 1985). 그러나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은 중앙아시아에서 범이슬람주의나 범터키주의의 발흥을 막기 위해 아랍문자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라틴문자를 도입하였다.<sup>19)</sup> 이후 스탈린 시대에 러시아 문화 우월

---

grammar)로는 Bodrogligeti (2003)이 대표적이다. 우즈벡어 교과서는 'O' qituvchi (선생)'이라는 출판사에서 주로 발간하고 있다.

18) 타슈켄트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대학의 우즈벡어 학과 교수들의 경우 상호간의 의사소통에서 뿐 아니라 학술논문의 경우에도 우즈벡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우즈벡인들 간의 의사소통에서는 우즈벡어를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어는 우즈벡어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사용되고 있다.

19) 1926년에 Janalif라고 불리는 34개의 라틴문자체계가 처음 채택되었고, 이후 1929년부터 1934년까지 몇 차례의 문자체계 개정을 거치면서 우즈벡어에 적합한 라틴

주의가 등장하면서 우즈벱어의 표기체계는 키릴문자로 바뀌었고, 이 체계는 1940년부터 1991년 구소련의 해체시기까지 지속되었다.

1991년 우즈벱키스탄의 독립 이후 우즈벱키스탄 정부는 “언어제국주의”의 상징물이었던 키릴문자를 라틴문자로 교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sup>20</sup> 1992년 1차 라틴문자로의 개혁을 시도한 이후 1995년 언어법으로 현재의 라틴문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표 8> 우즈벱어 신규 문자 대조표

우즈벱어 신규 문자 대조표			
라틴 문자 1926-1940	키릴 문자 1940-1991	라틴 문자 1995 1992-	국제음성기호
□ə	A a	A a	
B b	Б б	B b	b
V v	В в	V v	v
G g	Г г	G g	g'
□ □	Ғ ғ	G 'g'	ɣ
D d	Д д	D d	d
E e	Е е	E e	je
	Ё ё		
□ □, □ □	Ж ж	J j	dʒ
Z z	З з	Z z	z
I i	И и	I i	ɪ
J j	Й й	Y y	j
K k	К к	K k	k'
Q q	Қ, қ	Q q	q
L l	Л л	L l	l
M m	М м	M m	m
N n	Н н	N n	n
A a	О о	O o	ɔ
O o	Ў ў	O 'o'	o
P p	П п	P p	p
R r	Р р	R r	r
S s	С с	S s	s

문자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란어의 영향으로 인해 모음조화 현상을 상실한 우즈벱어에 모음조화를 반영하는 라틴문자체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체계는 후에 스탈린에 의해 라틴문자를 키릴문자로 전환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20) 문자개혁에 앞서 이미 1989년 10월 우즈벱어는 우즈벱키스탄의 공식언어로 공포되어, 매스미디어와 학술서적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T t	Т т	T t	t
U u	У у	U u	u
F f	Ф ф	F f	f
X x	Х х	X x	x
X x	Х, х,	h h	h
	Ц ц		
C c	Ч ч	Ch ch	ç
	Ш ш	Sh sh	ʃ
	Щ щ		
	Э э	E e	e
	Ю ю		
	Я я		
	Ь ь		
,	Ъ ъ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이전의 문자 체계에서는 총 36개의 키릴문자가 사용된 반면, 라틴문자는 1995년 라틴문자로의 개혁을 통해 총 29개가 사용되고 있다.<sup>21)</sup>

라틴 문자로의 전환은 현재 상당 부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슈켄트 시내의 박물관과 학교, 공공시설의 이름은 거의 모두 라틴 문자로 전환되었으며, 라틴문자로 쓰인 우즈벱어와 함께 영어가 빠른 속도로 키릴문자로 쓰인 러시아어를 대체하고 있다.

#### 4.3. 언어개혁의 문제점

현재 시점에서 우즈벱키스탄에서의 우즈벱어화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벱키스탄에서의 언어개혁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이중언어 상황이 우즈벱어 위상 회복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소통어로서 러시아어가 가지는 역할을 고려할 때, 급격한 이중언어 상황의 와해는 자칫 우즈벱키스탄 국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즈벱어의 위

21) 우즈벱어의 총 31개의 자음(25개)과 모음(6개)을 표기하기 위한 알파벳 수는 키릴문자와 라틴문자가 다르다. 키릴문자의 경우 36개였던 것에 반해, 라틴문자는 29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우즈벱에서는 1992년과 1995년에 통과된 언어법에 기초하여 초중고에서 정규교육을 통해 새로운 라틴 알파벳을 교육시키고 있으나, 이미 키릴문자로 교육을 받은 세대에게 라틴문자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상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이중언어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우즈벱키스탄은 우즈벱어의 지위가 상당부분 격상된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어가 차지하고 있던 상층언어의 지위를 우즈벱어가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언어 해계모니의 공백상태이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필수적으로 러시아어를 알아야 하는 실정인데다, 러시아어로 만들어진 많은 문화콘텐츠를 단기간에 우즈벱어로 대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sup>22)</sup> 따라서 우즈벱키스탄 정부는 편향된 우즈벱어화 정책에서 벗어나 이중/다중언어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민족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우즈벱어화 정책으로 인해 민족 간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족어 구사능력이 중시되면서 공직에 진출해 있던 러시아인의 불만이 높아졌고, 소수 민족이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미 소수 민족의 역외 이주가 많이 진행된 현 시점에서는 우즈벱키스탄 내 소수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소비에트 시절부터의 지속적인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즈벱어는 아직도 완벽한 표준화를 일궈내지 못하고 있다. 아랍어, 터키어, 러시아어의 언어 내외적 영향들이 언어에 잔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학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2) Wei(2004)의 연구는 우즈벱어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의 부재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Wei는 우즈벱키스탄 인터넷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녀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인터넷 사용자의 98%에 이르는 반면, 우즈벱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였다. 이는 우즈벱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비율을 감안했을 때 놀라운 수치이다. 한편 답변자의 70%는 러시아어와 함께 영어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그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65%가 러시아어를, 35%가 영어를 쓴다고 답하였다. 또한 러시아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직장에서는 러시아어를 쓰지만 집에서는 우즈벱어를 쓰는 우즈벱인은 인터넷에서 러시아어 콘텐츠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소통 대상의 지리적 위치는 대부분이 국외에 거주하는 지인과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언어의 능숙도 수준은 인터넷에서의 언어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즈벱키스탄의 인터넷 사용언어에 대한 Wei의 조사는 영어나 러시아어로 된 콘텐츠에 비해 우즈벱어로 된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 5. 우즈베키스탄 내 소수민족어 문제

소비에트의 언어정책이 러시아어 동화정책으로 우즈벱어에 대한 차별을 가져왔다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우즈벱어 위상 강화 시도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비 토착어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언어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표 9> 우즈베키스탄의 민족구성 (1995년 1월 현재)

	%		%
우즈벱인	75.8	우크라이나인	0.6
러시아인	6.0	아제르바이잔인	0.2
타지인	4.8	아르메니아인	0.2
카자흐인	4.1	벨라루스인	0.1
타타르인	1.6	유대인	0.1
키르기스인	0.9	독일인	0.1
투르크멘인	0.6	기타	4.9

출처: Kulchik, et al.(1996:91)

이 비율은 1년 후인 1996년 조사에 따르면 우즈벱인이 80%로 수직 상승한 반면 러시아인은 5.5%, 카자흐인은 3% 등으로 축소되고 타지인의 경우는 5%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에트 시기 상층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어가 다른 소수민족언어와 같은 위상으로 그 지위가 추락하고, 러시아어가 가졌던 지위를 우즈벱어가 대체해감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내 소수민족들의 반응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 5.1. 러시아어

토착 우즈벱인의 증가와 슬라브 민족의 역외 이주는 토착 우즈벱인의 자신감과 민족정체성을 강화시킨 반면, 슬라브 민족, 특히 다수를 차지하던 러시아인의 취약성과 피해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전에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인은 토착 우즈벱어를 배우거나 토착 우즈벱 정부에



복속되기를 꺼려했다. 그렇다면 우즈벱 정부의 강력한 우즈벱어화 정책에 대항하여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였을까?

우선, 언어정책을 포함한 다수의 민족주의 정책들이 소수민족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경우, 소수민족은 이에 맞서 집단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집단행동은 자신의 집단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결실을 맺기 힘들다. 집단행동을 위해서는 정치세력과 재원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우즈벱키스탄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독재정치로 인해 언론이 탄압받고 있는 데다,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과 달리 우즈벱키스탄 내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즈벱 러시아인이 정치적인 집단행동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즈벱 러시아인이 택한 방법은 이주였다. 소련 해체이후 1992년부터 96년까지 5년 간 러시아 내로의 이주민수 중 59%가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이주였는데(Smith et al. 1998:207), 이 중 25%가 우즈벱키스탄으로부터의 이주였다.<sup>23)</sup> 1930년대부터 1990년 중반까지 우즈벱키스탄 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수의 변화추이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0> 우즈벱키스탄 내 러시아인의 변화 (단위: 1,000명)

	1939	1959	1970	1979	1989	1996
전체인구	6,359	8,089	11,792	15,426	19,808	22,700
러시아인	744	1,092	1,474	1,666	1,653	1,362
비율	11.7%	13.5%	12.5%	10.8%	8.3%	6%

출처: 정경택 (2006:45), Ландау et al.(2004:65)

그러나 러시아로의 이주는 우즈벱 러시아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90년대 중반부터 역외 이주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즈벱키스탄의 러시아어의 문제는 주변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보다는 훨씬 용이하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35%)이나 키르기스스탄(20%)과는 달리 우즈벱키스탄 내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sup>24)</sup>

23)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이주자의 수를 생각한다면 이 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4) 1989년 카자흐스탄 언어법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의 사용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

그렇다고 우즈벡 러시아인들이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들이 우즈벡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즈벡 러시아인들은 우즈벡어를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즈벡어 습득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우즈벡어 학교의 교육수준은 러시아어 학교의 교육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즈벡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우즈베키스탄 내의 러시아 학교나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선호해 왔고, 지금도 이러한 경향은 바뀌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즈벡 러시아인이 우즈벡 문화나 사회에 동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우즈벡 러시아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면서 현 상황에는 어떻게든 적응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 5.2. 타직어

타직인들은 러시아인들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언어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직인들의 모국어는 이란어의 분과인 타직어이지만, 대부분의 타직인들은 우즈벡 러시아인들에 비해 우즈벡어 소통 능력이 높다. 둘째, 타직인들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에 익숙해져 있어 새로운 언어법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지 않고, 언어법이 자신들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느낄 이유가 없다. 셋째, 타직인들은 우즈벡인과의 민족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역사적으로 소비에트 이전 중앙아시아는 적어도 15세기 이후 터키어(차가타이어), 파르시아어(페르시아어), 아랍어(교육받은 계층)를 사용하였고, 이 세 언어는 모두 아랍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즈벡인과 타직인은 서로가 다른 민족임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었다.<sup>25)</sup> 또한 이 지역에서 이중/다중언어의 오랜 전통을 고려해 볼 때, 언어가 민족을 가르치고, 그 민족들이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타직인들에게는 강하지 않다. 특히, 타직 민

---

용을 담고 있다(Fierman 1998). 1995년 카자흐스탄의 헌법은 러시아어가 카자흐어와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에 동등하게 사용될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1997년 국회에서 통과된 언어법에도 이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와는 달리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어의 위상이 공식어인 카자흐어에 못지 않다.

25) 차가타이어는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융성했던 동 터키어에 기초한 문어로 소련의 문헌에서는 고대 우즈벡어'로 칭하기도 한다.

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마르칸드와 부하라의 경우 '타직인'과 우즈벱인'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 5.3. 카라칼팍어

우즈벱키스탄의 서쪽에 위치한 카라칼팍 자치공화국(Autonomous Republic of Karakalpakstan, Qoroqalpoghiston Respublikasi(우즈벱어))은 우즈벱키스탄 내에 위치하는 유일한 자치공화국으로 언어에 대한 자치권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sup>26)</sup> 현재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의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이들의 모국어는 카라칼팍어이다. 1989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이 지역 인구의 3/4 정도가 29세 미만으로 이 지역은 인구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 1991년 이 지역의 자연인구증가율은 3%을 넘었었다. 이 지역은 우즈벱 정부가 자치권을 인정하는 한 언어 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5.4. 한국어

현재 우즈벱키스탄 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언어상황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의 고려인 이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20-30년 대 소련의 농업집단화 정책과 군사적 동기로 인한 강제 이주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고려인들은 소련 내 다른 소수 민족들과는 달리 자치공화국을 형성하지 못하고 여러 도시들과 집단 농장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었다. 강제 이주, 지역적 분산, 자치 행정 단위의 부재라는 고려인들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을 러시아어 동화정책에 빠르게 흡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민족정체성이나 민족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구 소련 인구센서스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한인들의 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하고 있었다.

26) 역사적으로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이 현재의 정치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36년 스탈린이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터키 이슬람 그룹에게 우즈벱키스탄의 서쪽에 영토를 내 주고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부터였다.

<표 11>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려인들의 비율 변화<sup>27)</sup>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1994년
79.3%	68.6%	55.4%	35.2%	31.3%

반면 러시아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고려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t;표 12&gt;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고려인들의 비율 변화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1994년
20.5%	31.3%	44.4%	62.8 %	66.6%

물론 이 수치는 소련 시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져 살고 있던 전체 고려인들의 언어상황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한 통계 수치는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로의 빠른 동화 과정 속에서 우즈베크어를 포함한 지역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빠른 우즈베크어화 경향을 볼 때 고려인들의 우즈베크어 능력의 부재는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시장이나 거리의 언어가 빠른 속도로 우즈베크어화 하고 있고, 슈콜라(중고등학교)의 교육매개어가 빠른 속도로 우즈베크어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려인 2세 3세들이 우즈베크어 습득을 소홀히 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다음 세대 고려인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러시아어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우즈베크어로 인해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sup>28)</sup>

27) 표 11과 표 12의 수치는 윤인진(1997)과 허승철(1998)의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28) 현재 타슈켄트의 한국교육원에서는 우즈베크어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고려인이나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우즈베크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고려인들 중 우즈베크어를 수강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도 고려인들보다는 한국에 서의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크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다.

## 6. 맺음말

우즈벱키스탄의 언어상황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고찰을 통해 우리는 우즈벱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90년대 우즈벱키스탄의 언어상황은 소비에트 시기의 인위적인 민족 정책과 언어정책의 결과였다.

둘째, 1991년 소련으로의 독립 이후 우즈벱키스탄에서의 언어법은 우즈벱어의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정체성 확립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수민족어의 위상 격하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그 중 러시아어의 위상 격하 현상은 러시아어-우즈벱어 이중언어 상황을 해체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우즈벱키스탄의 언어입법에 대한 소수민족들의 반응은 러시아/슬라브 민족과 비러시아/슬라브계 민족이 상이하다. 러시아/슬라브 민족의 경우 우즈벱키스탄의 언어입법을 러시아-우즈벱 민족간의 분화를 강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이는 반면, 우즈벱과 문화 지리적으로 인접한 비러시아/비슬라브계 민족들은 언어정책을 큰 변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비명목 민족 중 우즈벱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우즈벱 러시아인들은 이주나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우즈벱키스탄에서의 그들의 작은 인구학적 위상으로 볼 때, 조만간에 우즈벱 러시아인들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수 민족들 간의 상반된 시각은 우즈벱키스탄의 언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우즈벱인의 인구증가가 가속화되고 있고, 비우즈벱 민족의 국외이주가 많아짐에 따라, 우즈벱어의 위상강화가 상당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즈벱키스탄 내 고려인들은 소련 지배 기간 동안 러시아어에 빠르게 동화되어 현재는 우즈벱어와 민족어인 한국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고려인들이 현지화와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 참고문헌

- 김효정(2000) 「우즈벱어 문자개혁과 과제」, 『중앙아시아 연구』 제5호, 143-157.
- 유승만(2008)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이론과 실제」, 『러시아 연구』 18:2, 141-165.
- 윤인진(1997)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집』, 256-261.
- 정경택(2006) 「우즈벱키스탄에서의 러시아어의 지위변화」, 『슬라브어 연구』 제11권, 47-60.
- 허승철(2002) 「중앙아시아의 언어정책」, 『이중언어학』 제21호, 330-347.
- Исаев, М. (1979) *Языков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СССР*. Москв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08) *Узбеки — стан в цифрах 2008*. Ташкент.
- Губогло, М. Н. (1984) *Современные этноязыковые процессы в СССР основные факторы 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 русского двуязычия*. Москва: Наука.
- Ландау, Якоб. М. & Келльнер-Хайнкеле, Б. (2004)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в мусульман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бывших советски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ах*. Москва: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 Тўхлиев Н. et al. eds. (2006-2008) *Ўзбек тилининг изоҳли луғти*. Тошкент: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 Усмонов, Ҳ. et al. (2004) *Ҳозирги ўзбек адабий тили*. Тошкент: ИLM ZIYO.
- Akiner, S. (1989) "Uzbekistan: Republic of Many Tongues," M. Kirkwood ed. *Language Planning in the Soviet Union*, 100-121. London: Macmillan Press Ltd.
- Bodrogligeti, A. J. E. (2003) *An Academic Reference Grammar of Modern Literary Uzbek*. vol. 1. Lincom Europa.
- Campbell, George L. (1995) *Concise Compendium of the World's Languages*. Routledge.
- Crisp, S. (1991) "Census and Sociology: Evaluating the Language Situation in Soviet Central Asia." *Shirin Akiner ed. Cultural Change and Continuity in Central Asia*. 84-123

- Fierman, W.(1985) "Language Development in Soviet Uzbekistan," I. T. Kreindler ed.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on Soviet National Languages: Their Past, Present, and Future*, 205-233 New York: Mouton de Gruyter.
- Fierman, W.(1995) "Independence and Declining Priority of Language Law Implementation in Uzbekistan," *Yaacov Ro'i ed. Muslim Eurasia: Conflicting Legacies*. 205-230. England: Newbury House.
- Hirsch, Francine.(2005) *Empire of Nations: Ethnographic Knowledge & the Making of the Soviet Union*.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Johansson, Lars & Csat, va . eds.(1998) *The Turkic Languag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irkwood, M.(1989) *Language Planning in the Soviet Un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 Kirkwood, M.(1991) "Glasnost', the National Question', and Soviet Language Policy." *Soviet Studies*, vol.43(1), 61-81.
- Kloss, Heinz.(1969) *Research Possibilities on Group Bilingualism: A Report*. Qubec: Centre international de recherche sur le bilinguisme.
- Kreindler, I. T.(1995) "Soviet Muslims: Gains and Losses as a Result of Soviet Language Planning." *Yaacov Ro'i ed. Muslim Eurasia: Conflicting Legacies*. England: Newbury House. 187-203.
- Kulchik, Y, Fadin, A. & Sergeev, V.(1996) *Central Asia After the Empire*. London: Pluto Press.
- Laitin, David D.(1998)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uhiddinova, X. S. et al.(2006) *O'zbek tili*. Toshkent: O'qituvchi.
- Sjoberg, A. F.(1963) *Uzbek Structural Gramma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chlyter, B.(1998) "New Language Laws in Uzbekistan." *Language Problems and Language Planning*, vol.22(2), 143-161.
- Schlyter, B.(2001) "Language Policy in Present-day Central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ies*, vol.3(2), 127-136.

Smith, G., Law, V., Wilson, A., Bohr, A and Allworth, E. eds.(1998) *Nation Building in the Post-Soviet Borderland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 Carolyn(2004) "Language and the Internet in Uzbekistan," *Proceedings of CaTaC*.

Wurm, Stefan(1960) *The Turkic Languages of Central Asia: Problems of Planned Culture Contact*. London: Central Asian Research Center.



## Abstract

### The Change of the Status of Uzbek Language and Problems of Minor Language Groups in Uzbekistan

Yoo, Syeng-Man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change of corpus as well as status of the Uzbek language in Uzbekistan, and to anticipate its future from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s.

Current bilingualism in Uzbekistan is resulted from Soviet language and ethnic policy. Due to Soviet language and ethnic policy, ethnic map in Uzbekistan became highly complicated, which resulted in various socio-political and ethnic problems.

After the fall of Soviet Union, Uzbek government has taken series of measures for "Uzbekization" of the language,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mote Uzbek language status. The government policy has brought some visible achievements in language corpus, including standardization of the language, publication of language texts and dictionaries, language attitude toward their own language, etc.

Facing the nationalistic language policy of the Uzbek government, each ethnic group revealed variations in their attitude and reaction toward the policy. Russian/Slavic people considered that the language policy of the Uzbek government strengthened the Russian-Uzbek ethnic tension, and they gradually left the land or had to be unvoluntarily adapted to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other hand, non-Slavic people did not take the policy as serious one as Slavic people did.

Koreans in Uzbekistan are now under difficult situation in terms of language attitude and its use. They have had negative language attitude toward Uzbek language, and they are not prepared to use it. In order to

localize properly in Uzbekistan with ethnic identity, they need to prepare themselves for Uzbek language as soon as possible.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9. 03. 13
논문심사일:	2009. 03. 19 ~ 2009. 04. 07
심사완료일:	2009. 04. 17